

08

보이는 것 너머로

- 1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 2 작품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여 나만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 리히터(Richter, Gerhard/독일/1932~) 베티(캔버스에 유채/101.9×59.4cm/1988년)

“
작가는 왜 소녀의
뒷모습을 그렸을까?
작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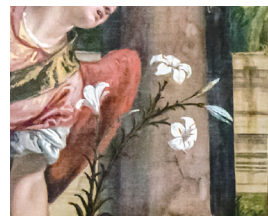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의 의미 해석하기

미술 작품에는 다양한 삶과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알아보자.

상징으로 작품 해석하기

작품의 소재로 쓰인 대상(도상)이 상징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대상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품에서 꽃과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 베로네세(Veronese, Paolo/이탈리아/1528~1588) 수태 고지(캔버스에 유채/279×551cm/1578년) 성서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홀로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수태 고지 장면이 나온다. 종교화는 전통적 규범에 따라 비슷한 도상이 자주 등장한다. 성령의 상징인 빛과 비둘기,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을 든 천사의 모습 등이 그 예이다. 오랜 시간 전해져 오는 도상의 의미를 알면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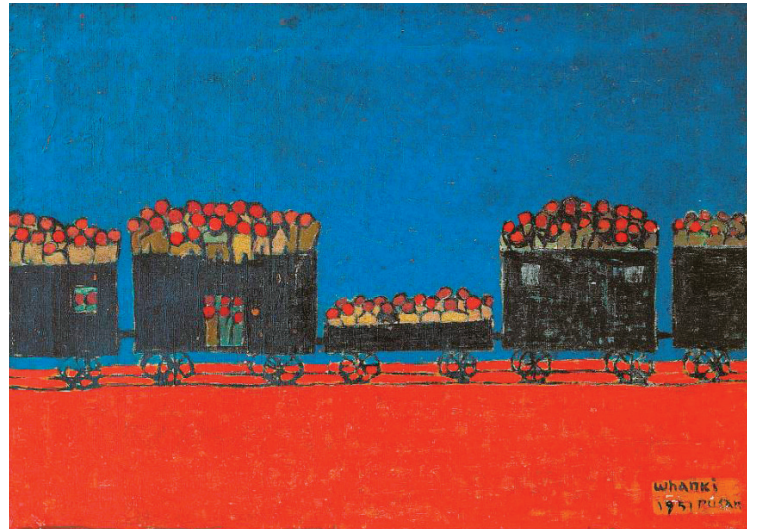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작품 해석하기

미술 작품이 제작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한다.

제작 당시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건 아닐까요?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군인이었던 사진대 대장 임인식(한국/1920~1998)은 열차를 타고 피란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 김환기(한국/1913~1974) **피란 열차**(캔버스에 유채/37×53cm/1951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수없이 많은 피란민 행렬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졌다. 객차에 들어가지 못해 지붕으로 올라간 사람, 화물을 싣는 자리까지 뺨뺨하게 찬 사람들이 보인다. 작가가 직접 겪은 전쟁의 참상을 표정 없는 얼굴과 단순한 구성으로 담담하게 표현했다.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작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다발**(종이에 구아슈로 채색된 종이/293×350cm/1953년) 작가의 인생 마지막 시기에 색칠한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제작한 작품이다. 마티스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은 꼭 그림을 그릴 정도로 성실한 화가였다. 말년에 찾아온 지독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붓을 잡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새로운 그리기 방식을 찾아 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다.

형식·양식으로 작품 해석하기

작품의 표현 기법이나 양식의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다.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작품의 크기는?

작가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 클레(Klee, Paul/스위스/1879~1940) **세네치오**(판지 위 거즈에 유채/40.3×37.4cm/1922년) 정사각형 캔버스에 둥근 얼굴, 빨간 눈동자, 오른쪽 검은 눈썹이 도드라진 인물을 소박하게 그렸다. 코, 입, 귀의 생김새는 과감하게 생략했다. 배경은 여러 차례 칠했지만 특별한 계획 없이 자유롭게 칠했으며 캔버스에 거즈를 발라 거친 질감을 표현했다. 작가는 입체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다양한 예술에서 영향을 받아 화면에 형상을 단순하게 구성하여 순수하고 독창적인 효과를 얻고자 했다.





▲ 쇠라(Seurat, Georges-Pierre/프랑스/1859~1891)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캔버스에 유채/207.6×308cm/1884~1886년)

하나의 작품 자세히 읽기

단독 감상^{*}은 하나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정보 등을 살피는 감상 방법이다. 작품을 감상한 뒤에 궁금한 점을 조사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

쇠라는 일요일 오후의 그랑드자트섬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이 그림은 파리 서쪽 센강에 있는 그랑드자트섬의 공원에 있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묘사했어. 당시 파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시 정비가 끝나고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춘 파리는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중산층은 공연을 즐기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여유로운 문화를 즐겼어.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작품에서도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의 작가는 어땠을까?



쇠라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초기에는 주류 예술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신인상주의를 창시하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과묵한 성격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규칙적으로 생활한 화가라고 해. 안타깝게도 이제 막 성공하려는 31세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어.

그렇군. 당시 파리의 풍경을 담은 다른 작품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당시 유행한 인상주의는 풍경의 빛과 색을 즉흥적 필치로 표현했지만 쇠라는 그릴 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뒤 화면에 색점을 찍어 나갔습니다. 쇠라는 이 기법을 '분할 묘사법'이라고 불렀고, 후에 사람들은 점묘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점묘주의는 인상주의의 빛과 색을 향한 관심을 과학적으로 확장했다는 의미를 담아 '신인상주의'라고 칭했습니다.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어.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은 내 그림에서 시를 본다 고 말하지만 나는 과학을 본다."



색채 과학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대에 쇠라는 그 새로운 지식을 미술에 도입하고 싶어 했어. 그는 색채 이론과 광학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법을 실험했어. 작가는 6개월 동안 매일 그랑드자트섬에 가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60점이 넘는 습작을 남겼어. 인물과 색점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계산해서 배치하느라 완성하기까지 2년이나 걸렸어.

같은 듯 다른 작품 함께 보기

비교 감상은 둘 이상의 작품을 함께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방법이다. 소재, 재료, 시대와 양식 등 다양한 면을 견주어 보며 작품의 특징을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같은 주제를 다룬 풍속화 비교하기

두 작품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을 재치 있게 그린 풍속화이다.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못해 혼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의 상황까지 비슷하다. 두 작품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2권 32쪽 '일상생활을 담은 그림' 참조

두 작품에서 알 수 있는 동서양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어떠한가요?



▲ 김홍도(조선/1745~1806?) 서당(한지에 수묵 담채/26.9×22.2cm/18세기)



▲ 스테인(Steen, Jan/네덜란드/1626?~1679) 학교 선생님(목판에 유채/109×81cm/1663~1665년)



원작과 패러디 작품 비교하기

피에타(pietà)란 이탈리아어로 '동정, 연민'을 뜻한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장면을 표현한 작품에 이 이름이 붙었다. 두 작품을 표현한 방식과 재료, 의미를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생각해 보자.

◀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피에타(대리석/195×174cm/1498~1499년) 마리아가 죽 처진 예수를 안고 슬픔에 잠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커다란 대리석을 깎아 만들었다. 부드럽게 늘어진 인체, 옛된 마리아의 얼굴, 옷 주름의 표현 등이 이상화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 준다.

◀ 이용백(한국/1966~) 피에타: 자기 죽음(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철판/340×240×20cm/2008년) 피에타 마리아의 자리에 거꾸집을 놓고, 예수의 자리에 거꾸집에서 나온 사이보그 형태의 인물을 놓았다. 거꾸집이 자신의 몸에서 나온 조각의 죽음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알고 가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은 어머니

독일 베를린에는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는 기념관 '노이에 바헤(Neue Wache)'가 있다. 웅장한 기념관 건물에 들어가면 중앙에 덩그러니 놓인 작품이 하나 있는데, '피에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콜비츠의 작품이다. 1차 세계 대전에서 아들이 전사한 뒤 작가는 전쟁과 가난에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판화, 조각 등으로 표현했다.

▶ 콜비츠(Kollwitz, Käthe/독일/1867~1945) 죽은 아들을 안은 어머니(청동/1937~1939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비교했을 때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콜비츠의 작품은 성스럽다기보다 인간적이다. 아들의 주검과 하나가 된 어머니의 청동상은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형상으로 전쟁의 비극을 고스란히 전한다.

▶▶ 노이에 바헤 실내 조각상 위 천장이 원형으로 뚫려 있어 눈이나 비가 오면 모자상은 눈비를 고스란히 맞아 더욱 아련한 느낌을 준다.



이야기를 품은 작품

인간은 오래전부터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왔다. 신화, 종교, 설화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도상을 알면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화 속 인물의 이야기

우리는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와 그 모습을 담은 미술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에로스의 금 화살을 맞은 아폴론과 납 화살을 맞은 다프네의 이야기는 여러 작가에게 소재로 활용되어 다양한 작품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 푸생(Poussin, Nicolas/프랑스/1594~1665) 아폴론과 다프네 (캔버스에 유채/97×131cm/1627년)



◀ 베르니니, 조반니 (Bernini, Gian Lorenzo/ 이탈리아/1598~1680) 아폴론과 다프네(대리 석/높이 243cm/1622~1625년)

부처님의 손에 담긴 이야기

불상은 손 모양에 의미를 담아 불법을 전한다. 부처나 보살의 깨달음을 손 모양으로 표현한 것을 '수인'이라고 한다.



▲ 경주 불국사 금동 비로자나불 좌상(통일 신라/높이 177cm/8세기)

◀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 중 일부 (높이 280cm/7세기)

문자도 속 설화와 교훈

한자의 획 안에 다양한 도상을 놓아 구성된 그림을 문자도라고 한다. 도상은 한자의 의미와 관련한 설화와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채워진다.



▶ 작가 미상(조선/미상) 호 문자도 (종이에 채색/58.5×29.5cm/미상) 잉어, 죽순, 부채, 거문고와 같은 상징이 문자의 획을 이루었다. 이 중 잉어를 보며 추운 겨울에 계모를 위해 강의 얼음을 깬 효자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한겨울에 어머니께 잉어를 드시게 한 효자 이야기가 생각나.



화려한 꽃에 담긴 서로 다른 이야기

두 그림은 꽃을 표현 대상으로 삼았지만, 모란 병풍은 '부귀영화의 염원'을, 화병의 화려한 꽃다발은 '인생무상'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 작가 미상(조선/미상) 모란도 병풍(비단에 채색/201×52cm씩 8폭/미상)

▶ 브뤼헬(자)(Brueghel, Pieter(the Younger)/네덜란드/1568~1625)
보석, 동전, 조개껍데기가 있는 꽃병(캔버스에 유채/65×45cm/1608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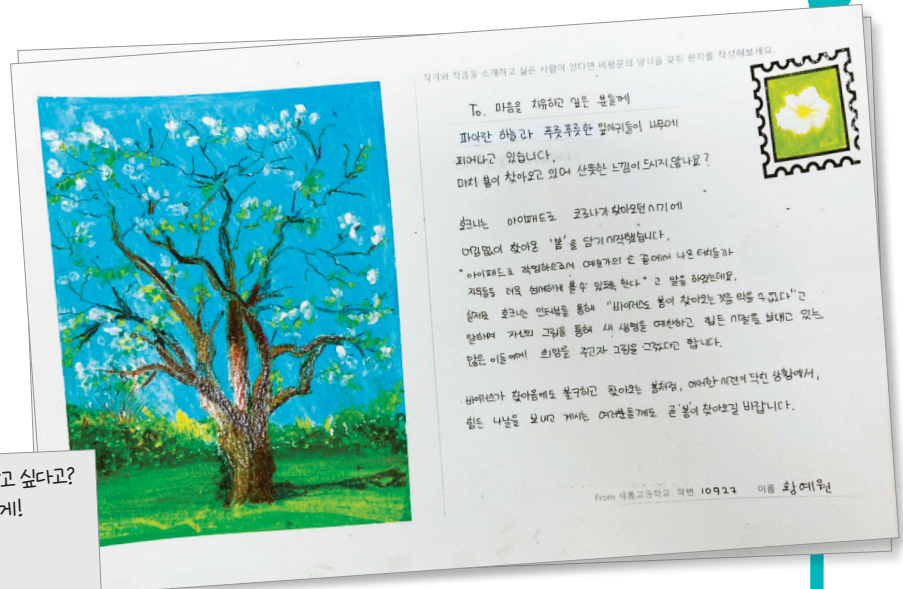
감상 활동

마음을 담은 감상 엽서 제작하기

표현 재료

A4 사이즈 도화지, 채색 재료, 필기도구

- 1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
- 2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편지글 형식의 작품 소개 글을 쓴다.
- 3 내가 생각하는 작품의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편지 제목을 정한다.
- 4 엽서 왼쪽에 글 내용에 어울리는 삽화를 그린다.
- 5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응용하여 우표를 디자인한다.



▲ 황예원(학생 작품)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분들께 (21×29cm/종이에 오일 파스텔, 펜)



단원 점검하기

-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
- 미술의 다원성을 존중하고 작품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여 새롭게 표현하였는가?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 고갱 -